

# 태국의 포장산업 실태

## Packaging Industry of Thailand

한국식품연구원 박형우 책임연구원 자료 제공

본고는 “재활용이 가능한 고차단성 폴리올레핀 유니 소재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친환경식품포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국의 식품포장산업 조사”를 토대하여 편집한 것이며, 태국 카쎄싸국립대학교 포장재료기술학과가 태국의 식품포장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태국의 식품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유리, 플라스틱, 종이 등 주요 포장재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다. 이 자료에서는 가능한 연성 및 경성의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의 생산현황을 담고 있다. 또한 포장용기의 생산량 및 추이가 태국 전역 및 주 생산 지역 전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포장 재료간 경쟁력도 언급한다. 제공하는 자료들은 현장조사, 설문, 인터뷰, 각종 서신, 그리고 각종 출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요약하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주요 식품포장 재료들 중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종이용기 중에서는 골판지용기가 여타 형태의 종이용기보다 많이 생산되었다. 플라스틱 포장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병과 유연성 파우치의 두 형태가 돋보였는데, 이는 대부분 음료업계에서 사용된다. 유리병도 태국의 음료업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재활용 용기로 활용된다. 지난 10년간 금속용기는 유연성 파우치와 아세트 카톤 팩으로 대체되어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

본 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박형우 책임연구원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태국 포장산업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 Ⅲ. 태국의 종이포장산업

#### 1. 식품용 종이 포장 개요

수년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환경보존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종이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 모양으로 가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해가 가능하고 저렴하여, 가

장 인기있는 포장재가 되었다. 종이 포장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종이 포장재는 크게 종이 박스와 종이 백으로 나눌 수 있다. 종이박스는 골판지 또는 판지로 만들어진다.

펄프 및 종이 가격 상승 골판지박스는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에 이용된다.

태국의 골판지는 시장의 45%를 차지한다.

골판지박스의 연간 생산액은 약 200억 바트에 달한다. 판지박스는 일반적으로 용기로 가공된다. 판지는 구조에 따라 다층판지와 단층판지로 구분된다. 티피에이(TPA)저널에 따르면, 태국의 용기제조업체의 44.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5백만 바트 이하의 규모의 영세업체들이다.

이 중 23개 업체만이 수출용 종이용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전체 종이박스 제조업체의 9.1%에 불과하다. 23개 업체를 보면, 모든 업체가 최소 300개 이상의 고객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많은 패턴과 디자인의 박스를 생산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종이용기제조업체는 몇 개의 고객업체와만 거래하는 대신 비슷한 패턴과 디자인의 박스를 대량으로 수주한다. 즉, 태국의 종이포장업체의 고객사인 제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종이포장재의 소비는 내용물인 제품의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종이 포장은 보호나 부가가치 창출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에 따라 디자인된다. 제품의 보호 외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과 비교해 볼 때, “중급” 및 “고급”의 제품은 제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포장의 미적인 요소에 주목한다. 소비자들은 보기 좋은 포장에 끌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판매의 시점에는 제품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브랜드가 제조업체의 명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이포장재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골판지용기의 대부분은 유통에, 특히 수출에 사용된다. 수출용 용기의 약 99%가 골판지용기다.

골판지용기는 여러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사용하는 종이포장재의 약 50%가 골판지용기이며, 전기기구, 의류, 장난감, 스포츠 등 여타 업계가 사용하는 종이포장재의 약 38%가 골판지용기이다. 태국에서 종이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계는 식품업계다. 골판지용기 시장은 매년 15~1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여러 생산업체들과 컨버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상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자, 종이 백 등을 포함한 소비자 포장의 비율이 총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골판지와 판지를 포함한 태국의 종이생산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태국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에 사용될 기계류 수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주고 법인세도 5년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종이용기의 대부분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다. 종이포장업계의 주 생산 품목은 골판지상자와 옵셋 인쇄가 된 종이상자(접이식 상자/내부상자), 그리고 옵셋 인쇄가 된 골판지이다. 시엠시멘트 퍼블릭사(Siam Cement, SCG Public Company Limited)의 시엠포장(Siam Packaging)그룹은 골판지상자 생산에 특화된 태국 최대의 기업이다.

## Hot Issue

타일랜드은행에 따르면, 골판지용기는 지난 몇 년간 내수시장과 외국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여 그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2013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민간 및 정부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바트화가 평가 절상되면서 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수출업자들도 고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태국의 전기/전자, 컴퓨터, 의류 업계도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태국의 산업계와 정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식품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종이포장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이며,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골판지박스의 경우, 생산공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많은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총 수익이 그리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 시엠 포장 그룹이라는 대형 기업이 있으며, 그 외의 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접이식 상자도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다. 태국에서 접이식 상자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략 200~300개가 있는데, 이들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인쇄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상당히 분명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재를 포장할 접이식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기기구를 포장할 접이식 상자를 생산하지 않는 식이다. 광범위한 제품들이 접이식 상자를 사용함에 따라 포장업체들은 특정 제품에 사용될 접이식 상자를 특화시키고 있어, 경쟁의 폭은 좁아졌다.

전기/전자제품용 종이포장의 동향은 자주 바뀌어 왔다.

대형TV나 사무용 전자장비 등의 전자제품은 그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읍셋 인쇄를 거쳤을 때 골게이티드 보드로 만든 접이식 상자의 인쇄 품질보다 골게이티드 카드보드로 만든 접이식 상자의 인쇄 품질이 낮기 때문에, 후자의 수요가 더 많다. 용기는 유통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포장디자인은 대개 개발된 제품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복사기와 팩시밀리가 결합하여 복합기가 되거나, 여러 디자인의 다기능기계가 등장한다. 더 커진 제품이 포장재의 크기도 크게 만드는 것이다. 종이포장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1. 긍정적 요인

- 가벼움/형태의 다양성/고품질의 인쇄
- 각 업계가 전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에 골판지용기를 사용함
- 펄프업계나 제지업계 같은 상부산업의 지원을 통해 생산망과 공급망 구비
- 재활용 가능

### 1-2. 부정적 요인

- 습기에 취약

- (인쇄업계로부터 넘어온 기업들로 인한) 경쟁 과열과 내부적/지역적 가격 경쟁
- 펄프 및 종이 가격 상승

## 2. 태국의 종이포장 생산

태국의 종이포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외국 기업들의 덤핑, 무역장벽 아래의 재고품들이 시장에 덤핑매물로 나온다.
- 인쇄업체와 포장업체 간의 클러스터 등 업계 간 경합이 없다.
- 유칼립투스 농장 육성 정책의 부재, 유칼립투스는 종이포장에 매우 중요한 천연자원인데, 전략적으로 농장지대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 종이포장산업을 지원할 기술이나 연구를 수행할 정부기관 및 정보기술의 부재, 이로 인하여 외국의 산업과 경쟁할 수 없다.
- 정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각종 법규 및 절차가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합하지 않다.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세관에서의 절차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 2-1. 대형업체

태국의 종이포장업체에는 약 660개의 업체가 있다.

기업의 규모는 영세업체부터 대형업체까지 다양하다. 1억 바트 규모의 영세업체는 업계 총 업체 수의 80%에 해당되며, 1억~10억 바트 규모의 중간업체는 총 업체 수의 18%에 달하고, 10억 바트 규모를 넘는 대형업체는 총 업체 수의 2%에 불과하다. 업계 내 기업들은 생산능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영세업체는 골판지나 판지 같은 포장재를 받아 포장재를 완성시키고, 중간업체는 종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크라프트지를 가지고 코루게이티드 시트를 만든 후, 종이용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대형업체는 제지부터 종이용기 생산까지, 모든 생산 활동을 한다. 태국의 대형 제지업체는 다음과 같다.

에스시지페이퍼(SCG paper)는 연간 5.73lakh tons의 종이 생산능력을, 연간 4.3lakh tons의 펄프 생산능력을, 연간 5.5lakh tons의 접이식 종이상자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어드밴스드 아그로퍼블릭(Advance Agro Public Co., Ltd.), 아시아크라프트(Asia Kraft), 히양성(Hiang seng/PPI), 마이차이(Mahachai), 인터파이버(Interfiber) 등이 있다.

### 2-2. 생산 추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이포장산업은 감소 추세에 있었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10년 태국을

## Hot Issue

동남아시아의 인쇄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산에 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긍정적 요인

- 가벼움 / 깨지지 않음 / 형태 및 프린팅의 다양성
- 많은 업계에서 2차포장재로 사용됨
- 펄프업계나 제지업계 같은 상부산업의 지원을 통해 생산망과 공급망 구비
- 세제상 혜택 등 정부의 지원
- 친환경의 추세

### 2) 부정적 요인

- 내구성, 지속성, 내습성 등에 약점이 있음  
- 아시안 자유무역협정(AFTA)협정에 따른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저가제품 용기용 판지/골판지로 판든 종이 포장재는 앞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1년 태국 포장산업의 성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포장 7%, (종이포장을 포함한) 프린팅 8%, 연성 포장 12%, 식품산업 10%(가장 높은 성장률)에 달한다.

## 2-3. 수출입 및 시장현황

불황과 종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인쇄물 및 포장재로 쓰일 종이의 수입은 2009년 조금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 세계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최근 종이포장산업은 포장을 요하는 소비재, 전기기구, 냉동식품 등의 수출품 덕분에 선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인쇄물 및 종이포장재에 높은 과세장벽을 설정함에 따라, 중국의 인쇄업체들은 태국의 인쇄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대미 인쇄 및 수출 활로를 뚫고 있다.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인쇄물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지공장을 설립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첨단기술을 갖추에 따라, 중국은 태국 제지산업의 주요 경쟁국이 되었다. 중국은 수출량을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태국 종이포장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국에서 종이포장을 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제지공장과 코루게이티드 시트 생산공장을 갖춘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중소기업체들이 종지와 코루게이티드 시트를 제지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함에 반해, 대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포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정리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체들은 다음의 방법을 따라 생존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 고객을 설정한다. 수출용 원예품, 과일 등 특정 분야의 포장을 특화하여 대상 고객을 설정한다.
- 소량 생산되는 제품을 위한 특별/특수 포장에 집중한다.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는 소량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대형업체들은 소량생산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 산업부 산하 산업진흥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산업진흥국은 중소기업가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할 포장디자인 및 프로토타입을 제공/지원한다. 이는 디자인 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포장디자인을 용이하게 한다.
- 인쇄업체와 협력하여 인쇄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협력할 파트너를 찾는다.

### 3. 태국의 종이포장 현황

단섬유장 종이 생산은 2011년 108%였다. 2010년에 비하면 0.2%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종이섬유의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종이섬유, 제지, 인쇄물의 생산은 2012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덕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섬유, 제지 및 인쇄업계에 영향을 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다. 부정적 요인으로는 2011년 말에 태국에 발생한 대홍수를 들 수 있다. 특히 인쇄업계, 전자업계, 자동차부품업계를 포함한 태국 산업 전반이 가동을 중단하였다.

위 업체들은 실업자들을 양산하였으며, 태국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나 2013년 많은 기업들이 홍수가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태국 정부가 포장과 인쇄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산 20억 바트를 집행할 것이라는 점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종이와 관련된 태국의 산업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쇄용 제지와 포장용 제지가 그것이다. 태국에서 가장 큰 제지업체는 에스시지페이퍼(SCG paper)로,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제품포장용 또는 유통용으로는 판지, 골판지, 크라프트지가 사용된다. 포장산업의 높은 수요 덕에 생산성 지수와 소비율은 2012년과 2013년 증가하였다.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품 업계에서 유통에 사용하는 종이포장재 외에도, 식품 또는 유제품용 종이포장재는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매력적인 포장재가 될 수 있다.

태국으로 수입되는 종이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정보기술국의 발표에 따르면 대량생산 및 저가라는 우위를 가진 중국산 종이포장재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종이포장재 수출량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순으로 높고, 대부분이 이 세 국가로 수출된다. 중국은 10위의 태국산 종이포장재 수입국이다. 종이포장재의 수출액은 플라스틱포장재의 수출액보다 낮은 반면, 종이포장재 생산량은 플라스틱포장재의 생산량보다 많다.



## Hot Issue

이는 태국의 종이포장재 소비율이 높고 종이포장의 생산원가가 플라스틱포장의 생산원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태국 종이포장의 추세

최근 태국의 종이포장은 고부가가치의 포장을 위해 다음의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

- 모던한 추세에서 뛰어난 유통기간 보유

(쉽게 개봉할 수 있고, 다시 닫을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에 바로 넣을 수 있는 등) 편리하고, 즉석식품을 담을 수 있으며, 1인용으로 제공되고, 휴대가 용이하고, 긴 유통기한을 보장할 수 있는 등,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기능성 포장.

-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고품질 프린팅을 포함한 품질 관리

- 훌륭한 생산망 및 공급망. 높은 생산성과 가격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물류 효율화

- 친환경 마케팅 및 (특히 수출을 위한) 환경관련규정 준수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5. 종이포장산업의 성장

종이포장의 성장동력은 다음과 같다.

지역시장의 성장 및 소비증가 2012년 국민총생산(GDP)가 5.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인구는 약 6천9백만 명이었고, 노년층이 10%였으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총 인구 중, 도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65%정도 된다.

전통적 거래와 현대적 거래의 비중이 비슷하지만, 현대적 거래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소매업은 2012년 약 7.5% 성장했다. 전국적으로 할인매장 및 편의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소비재는 약 8%의 성장률을 보였고, 식품은 약 8~12%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기능성 음료와 즉석냉동식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5년부터 아세안(ASEAN) 단일시장이 출범한다. 이는 약 6억 명에 이르는 소비자로 이뤄진 거대 소매시장이다.

(미얀마 등) 태국의 서쪽에 위치한 국가들에 수출하는 태국 업계에는 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좋은 기회만큼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기회 증대되며 성장률은 4.5%로 추정되고 있다.

“타이 키친 투 더 월드” 정책에 따라 즉석식품이 고 성장세에 있다. 태국에 위치한 생산지대 확장(참고로 태국에서 해외 태국식당으로 소스와 부재료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고 있다)

[표 16]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태국의 종이 수출

국가	수출량 (톤)	캐피탈 (백만 달러)	비율
인도네시아	7,239.36	20.9	31.51
베트남	4,040.31	15.86	23.92
미국	3,619.34	9.31	14.03
일본	1,139.89	3	4.53
대만	601.51	2.75	4.14
말레이시아	985.02	1.62	2.44
라오스	1,347.73	1.54	2.33
싱가포르	373.67	1.42	2.14
캐나다	543.77	1.39	2.10
중국	607.84	1.04	1.57
기타	2,398.78	6.72	10.13

유니레버, 콜게이트 팔모리브, 피앤지, 존슨앤존스, 김버리크라, 마르팻푸드, 캐드베리(Unilever, Colgate Palmolive, P&G, Johnson & Johnson, Kimberly-Clark, Mars Pet Food, Cadbury)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에 따른 포장재 수요 증가와 그로인한 고품질의 구조디자인 및 그래픽디자인 산업이 육성 될 것이다.

## 6. 경쟁력

아시아 신흥국은 2007년 고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9%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에프피피(FPP) 시장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되었다.

가장 높은 에프피피(FPP)제품 수요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목재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는, 중국 내에서 수입목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는 버진섬유 및 재용섬유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섬유 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인접국가인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산업적 농장을 확장하고 있다. 섬유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고자, 아시아의 제조업자들은 북미와 남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아시아펄프앤 페이퍼(Asia Pulp and Paper, APP)의 중국은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에 위치한 메도 호의 펄프공장을 확보했다 [표 16].

다음호에서는 ‘태국의 포장산업’ 마지막회로 ‘태국의 유리 포장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ko]